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국제화를 추진하는 플라스틱의 메카

다양한 사업으로 조합사에 이익 환원

태동 21년의 맘모스 조합

플라스틱 제품이 생활에 쓰여지면서 수많은 편리함과 함께 플라스틱공업도 급속히 발전해 왔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 공업용을 비롯한 생활용품 등 플라스틱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용도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이같이 플라스틱이 확산됨에 따라 대정부활동, 대국민홍보 등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국노)이 태동한지 21년을 맞았다.

지난 73년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과 대한합성수지원료공업협동조합을 병합하여 설립된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그해 4월 상공부장관의 합병승인(제75호)과 함께 한기태 초대 이사장을 중심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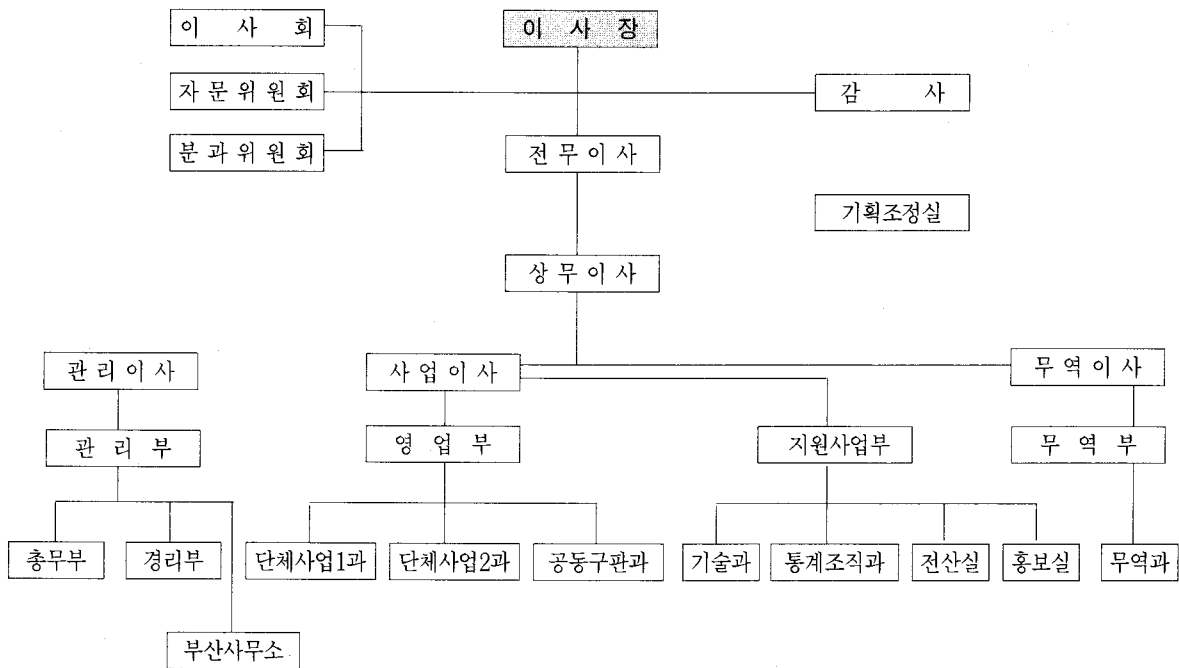
처음 182개 조합사로 구성되었던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지난해 말 749개사가 등록되어 명실공히 플라스틱 관련 제조업체들의 구심점으로 각종 사업을 펼치는 등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은 합성수지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기회균등,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경영적 지위향상을 기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설립됐다.

조합이 펼치고 있는 사업은 생산, 가공, 수주, 구매, 보관, 운송, 기타 서어비스 등 공동사업과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조합

[표1] 조직편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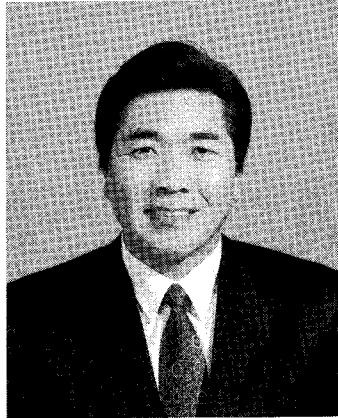
원의 생산품에 대한 규격통일 및 공동검사, 시험연구,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건전한 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및 연락사항,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부대사업 등 해야될 수 없을만큼 방대하다.

지난해 조합운영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3D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합사들을 위해 병역특례대상 업체에 대한 인력공급과 해외인력 국내연수를 추진했고 환경보전을 위한 폐플라스틱 처리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고 해외기술 및 정보제공 강화, 조합원 권익보호 및 공동 구매 확대,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 추진 등 성과면에서도 두드러졌다.

조합은 11대 이국노 현 이사장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벌여 지난해 PE, PP수지 등 조합사에 소요되는 원재료 114억5천만원의 공동구매와 675억75백만원 가량의 단체계약을 실현해 조합사에 혜택을 주었다.

12개품목 단체 수의계약

지난해에는 특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라인(끈), 폴리에틸렌관(수도용, 일반용, 전선용, 파상형, 가교화 포함), 관비닐(광통신, 케이블 보호관 및 발포관 포함), 전선관(경질비닐), 플라스틱상자(폴리에틸렌제품에 한함), 플라스틱시트(폴리에틸렌 방수시트에 한함), 폴리에틸렌필름(EVA, LLDPE포함), 폴리에틸렌제품, 폴리프로필렌제품, 폴리스틸렌제품, 셀로판 접착테이프(OPP, PP경고용 표시 테이프도 포함), FRP제품 등이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현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 프라스틱조합 이국노 이사장

은 임원 31명, 직원 38명이 4부10실 과정에서 조합사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합 구성원인 749개사들의 생산제품별 현황을 보면 PE필름, PP필름, 발포성형제품 등 플라스틱 관련 제조 전산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다양

한 면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회사, 합자회사 등 소형업체에서 대형업체까지 형태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상호간 보완을 이루면서 뛰어난 단결력과 활동을 보이고 있다.

프라스틱조합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조직기구의 능률적인 개편, 조합 공동사업규모 확대, 불건전 채권관리 강화, 정부시책 사업추진 애로 및 건의, 인력개발 공급, 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환경보전 강화, 해외기술 및 정보 제공, 품질관리제도, 단체표준제정 등으로 조합사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익단체로 변화시키기 위해 조합 영업을 팀제·성과급제로 개편하는 자체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표2] 생산제품별 업체 현황

생 산 제 품	업 체 수	구성비(%)
PE FILM	211	28.2
PP FILM	23	3.1
중포장제	5	0.7
POLY BAG	18	2.4
사출제품	194	25.9
직조포장	23	3.1
PVC PIPE	53	7.1
PE PIPE	46	6.1
Blow Molding 제품	33	4.4
Coating Laminating	10	1.3
발포성형 제품	17	2.3
FRP 제품	28	3.7
열경화성 수지제품	10	1.3
SHEET 류	15	2.0
HOSE 류	2	0.2
Leather, 합성피혁	8	1.1
Compound	3	0.4
絲 BAND TAPE	18	2.4
기타 제품	32	4.3
계	749	100.0

PL마크제품 구매토록 홍보

프라스틱조합은 단체규격이 100가지가 넘을 경우 매일 텔레비전 스팟타임을 이용하여 광고를 내보낼 계획인데 내용은 PL마크가 있는 제품만이 정상적인 제품이고 그 제품만을 조합이 품질보증, 신용보증을 하고 손해배상까지도 보증해 준다는 것으로 조합원사는 물론 소비자가 PL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조합 종업원들의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일의 성과와 능력을 높이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프라스틱조합은 올해 중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고 있다. 바로 한국플라스틱연맹을 구축하는 것이다.

재생활라스틱조합, 석유화학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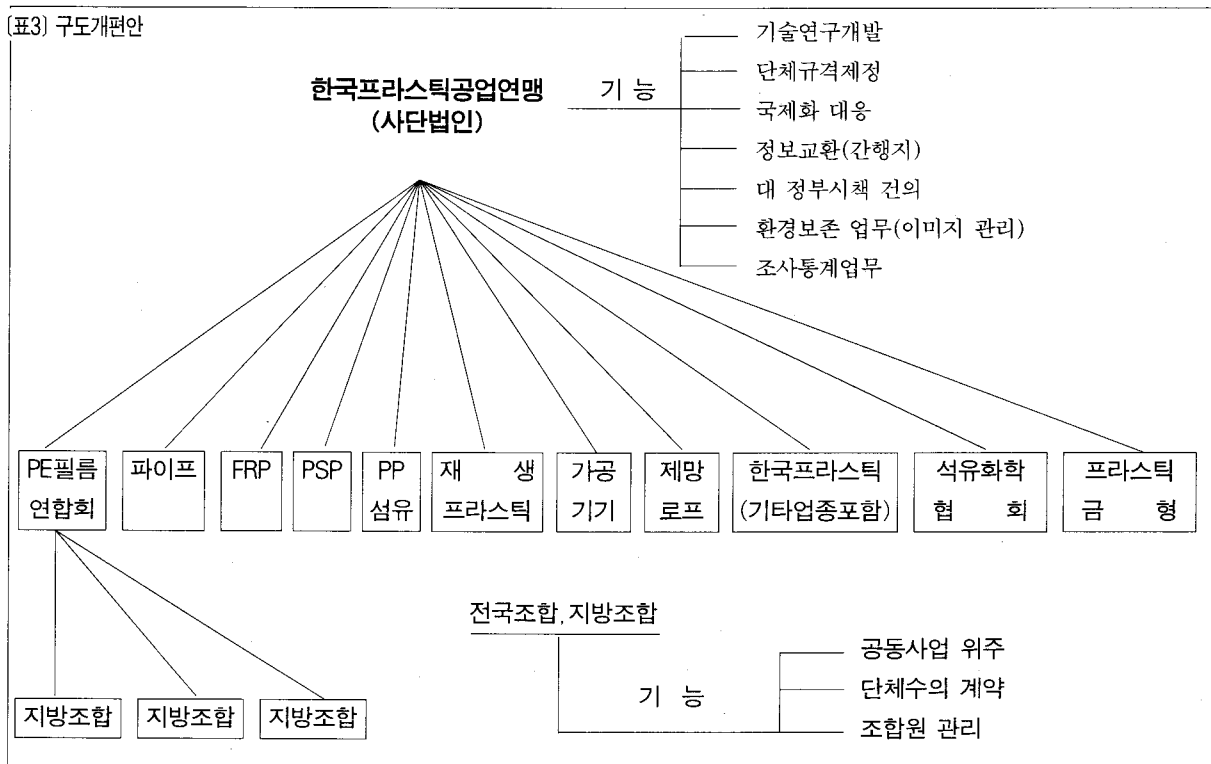
▲ 조합은 지난해 8월 기술연구조합을 발족시켜 업체 기술지원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어망조합, PP조합, 금형조합, 가공기계 조합, 프라스틱조합 등 이미 전국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련 단체들을 연맹에 가입시키고, 업종별로 몇개의

단위로 독립시켜서 이를 통틀어 연맹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면 연맹에서는 현재 기술연구조합의 PL규격 관련업

(표3) 구도개편안



무, 월간지 발행, 정보통신, 무역, 정책 사업, 기타 통계분석 등을 포함한 업무를 담당하고 단체 수의계약, 공·구 관사업은 각 조합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는 복안이다.

이같은 활동과 계획을 보이고 있는 프라스틱조합은 지난 1월14일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었던 IPF 94에 조합원 12개사를 선정해 출품, 높은 관심도를 보여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화의 시도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1월20일에는 멕시코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7개업체) 대표들로 구성된 투자사절단을 맞아 국내업체(40여업체)와 합작투자, OEM생산, 한국제품의 구매 등 여러분야에서 필요한 개별상담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관련이 분야에 대한 멕시코의 투자환경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멕시코 투자환경세미나

이국노 프라스틱조합 이사장은 “국제화, 개방화에 앞장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케팅능력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아이디어 창출이라 지적하고 현재 설비되어 있는 기계, 공장을 갖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술연구조합 실적 우수

프라스틱조합은 지난해 한국프라스틱기술연구조합을 창설하고 현재 7가지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기술연구조합에서는 PE필름, PVC파이프, FRP, 시트 등 6~7개 품목에 대한 연구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필름 자동폭조절기는 이미 설계가 끝



▲ 멕시코 투자환경 설명회

나 제작중에 있고 현재 삼호산업에서 시험생산되고 있는데 실험제품이 (주)쌍용에 납품되어 상당한 호응을 얻는 등 이제까지 일본 제품에 의존해 있었던 것을 국산화시켜 수입대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름 자동폭조절기는 KS규격의 허용오차 15~30%를 0.5%까지 상향시켜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가격도 1,000만원대에서 150만원대로 낮춰 업체의 이익은 물론 조합의 수익도 늘릴 계획이다. 기술연구조합에서 개발, 보급하고 있는 또 하나는 자동아미(그물여과기) 교환장치로 공기나 유압으로 조정하고 장치를 설치했을 경우 24시간 유지 가능하고 사후 문제도 없으며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제품으로 외국진출이 가능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연구는 내충격성 통신용관 및 음용수관으로 주철관 대체용으로 인장강도, 압축강도(편면) 등 물성이 아주 강한 통신용 및 음용수관의 공동연구 개발로 전망이 밝다.

올해 사업계획 등 세부사항 점검에 바쁜 이국노 이사장은 “그동안 90%를 조합일에 할애했으나 올해에는 50%를 조합에, 자신에게 50%를 할애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밝히고 프라스틱 전문 교육기관이나 공단건설도 구상중임을 비쳤다. “프라스틱이 아직도 화학이라는 개념에 포함되어 독자성,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 이사장은 “화학쪽에 포함돼 공해물질이나 유발시키고 약품처럼 생각되어 지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지적하고 프라스틱 단독개념으로 독립시키는 작업을 구상중이라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산업 가운데 프라스틱산업의 비중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프라스틱산업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프라스틱조합은 조합사들에게 더 많은 이익과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오선진 기자